

교계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본동 희망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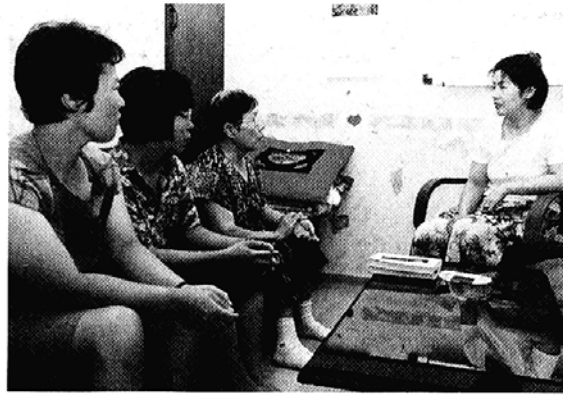
“희망의 공간으로”

IMF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경제는 점점 회복되고 있다지만 가정과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실직노숙자들은 여전히 많은 숫자다. 특히 여성 노숙자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기를 다질 마땅한 지원기관이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같은 사회적 무관심에서 여성실직노숙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는 교계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두곳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뜻깊게 운영되고

있지만 교계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는선우가 목동에 개설한 화엄동산(소장 김기해)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104명의 여성실직노숙자들이 거쳐갔고 현재 26명이 입소해 있다. IMF실직자, IMF가정폭과자, 부랑인, 중국교포, 정신장애자, 신체장애자 등 여성의 전화, 서울역 상담소, 구청등을 통해 들어온 여성실직노숙자들이 자립때까지 공공근로와 일반 취업활동을 하

며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 화엄동산은 현재 운영중인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가운데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만 정부지원금 월 130만원과 후원회비만으로 부식에서부터 숙옷, 양말에 이르기까지 의식주와 건강을 챙기기는 역부족이다. (02)2642-1363

지난해 10월 19일 본동복지관 내 문을 연 본동희망의 집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8명의 여성실직노숙자가 입소해 공공근로활동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여성실직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여성실직노숙자 쉼터들의 운영이 어렵다. 교계 쉼터 두곳중 한 곳인 '희망의집'에서 상담하고 있는 여성실직노숙자들.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월 100만원으로는 단순한 보호소 역할에 재할지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02)817-8052

화엄동산 김기해소장은 “여성실직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IMF 구제금융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집체에 대한 문제”라면서 “여성실직노숙자 상담소, 의뢰자인 등 사회적 안전보호장치 마련 등에 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nia.com)

“단군은 건국의 상징”

KCRP 성명서 채택

한국공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고문·희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단군상 훼손사건’에 대한 종교지도자 성명서’를 채택하고 “단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라며 “신앙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다른 신앙과 신념에 대해 관대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군상 훼손사건을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아 이웃종교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동노력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당국에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뉴스 & 뉴스

JTS 청소년 심성수련회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사업부는 ‘달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성장의 길로’를 주제로 실직가정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회를 연다. 실직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는 8월 2일~6일까지,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회는 8월 10일~13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청소년과 부모, 선생님과의 전화나 면담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02)587-8995 이은자 기자

‘로터스 랜턴’ 2호 발간

조계종의 영문소식지인 주간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 2호(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한국사회의 여름나기를 특집으로 꾸렸고, 해외사와 관련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 종 목어 운판 법고 등 사물에 대한 설명, 구산스님의 법문을 실었다. 불교소식으로 불교행사, 불교도금강산 순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불교 방문, 조계사 외국인 안내센터 개설 등을 정리했다.

로터스 랜턴 2호는 5천부를 발행해 일본과 동남아의 주요 불교종단과 미국과 유럽의 불교단체, 불교언론, 세계 주요대학 도서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주한외국대사관과 문화원 등에 배포한다.

정성운 기자

청각장애인 수련대회

공립사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은 8월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 상주 남장사에서 청각장애인 불자회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청각장애인 35명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수화노래 배우기, 반야심경 사경 및 부처님 그리기, 염주 만들기, 불교교리공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영우 기자

부산BBS 류사장 유임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사장에 류진수씨, 운영위원장에 성오스님(법어사 주지)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운영위원장은 삼성건설 대표 정종욱씨가 새로 선임됐고 본부장에는 박순씨가 유임됐다.

천미희 기자

명신스님 횡령현의 구속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前대표이사인 명신스님(법어사 주지)이 사인 명신스님과 당시 법안관리실장 허진씨가 지난달 2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또 10일에는 2대 대표였던 최고영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명신스님과 허씨 등은 보리수마을 입주자 78명이 낸 보증금 43억원을 97년 8월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예치한 후 이중 1억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한영우 기자

석남사 비구니 특별선원 추진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과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 석남사 수행환경보존 대책위원장 도문스님은 23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해 석남사의 비구니 특별수행도량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의 중앙총회와 협의해 특별선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남사 앞 4백m 거리에 있는 상가부지(300평) 매입을 협상중인 가운데 석남사에서 업자에게 2억원을 제시했으나, 건설업자가 7억원을 요구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석남사는 상가부지 매입을 위해 ‘방 1평 사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직지사앞 음식점 철회 요구 대책위, 김천시청 항의방문

직지사 일주부안 음식점 신축허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직지사스님들과 신도들이 김천시청을 방문해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철회운동에 나서고 있다.

직지사 본말사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 2백여명은 16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본말사주지 김갑대법회와 김기해회장을 개최하여 김천시청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대법회에서는 △산문앞 유흥음식점 허가철회 △자연환경 및 민족문화유산 파괴행위 저지 등 3개항으로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지사주지 법등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속속으로 건축업 제

8조4항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러한 진통을 겪어왔다”면서 “정사법상 사찰경내외의 개념을 고치는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며 근본대책마련을 밝혔다.

한편 직지사는 △25일 불암사 선방수과 및 강원학인 총괄기대회 △8월28일 제17기 행사교육장가자 5백명의 20일간 참회정진대회 △9월29일 대구경북5개본말사 주지스님 결기대회 △10월11일 구주계산법사 결기대회 △10월25일 전국불교신도 합동총괄기대회 및 보살계수계대회 등 단계적으로 철회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대불청 20대 회장에 전안호씨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 전안호씨(43·주)대경철강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대불청은 1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제40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안호씨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

선거를 실시, 전안호씨를 제20대 중앙회장에 선출했다.〈관련인터뷰 3면〉 전씨는 대외원 1백14표 중 62표를 득표해 52표를 얻은 이상반씨를 1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따라 전씨는 내년

풍경소리와 어우러진 선율

산사음악회 ‘황홀경’

녹음이 짙어 가는 여름 산사에서 찬불가, 국악,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마련되고 있어 산사를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산사 음악회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불방의 그윽한 향기까지 느낄 수 있어 더욱 감동이 배가된다.

4일부터 공주 갑사(주지 장곡)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승과속이 하나되는 갑사 열린 마당’이 마련된다. 월 1호 불교록그룹 ‘아미타’가 출연해 찬불가와 록음악을 관객들과 승산객들에게 선사하고 불가로 구성된 한울림국악원 악단이 찬불가와 민요, 사물놀이 등을 연주하는 흥겨운 무대다. (0416)857-8981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10월2일 '99

관광엑스포의 일환으로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를 공연한다. ‘조원’ ‘산행’ 등 기존곡과 6월에 발표한 김영동의 신곡 ‘메아리’ ‘노을’ 등 20여곡이 연주될 신흥사 음악회에는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이다. 또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코러스는 보컬그룹이 연주를 맡는다. (0392)636-7393

양산 통도사 육련암(주지 법선)에서는 지난 11일 장사익씨의 노래와 풍물패 공연, 노름마치의 길놀이 등이 펼쳐졌으며 24일 진행된 보탑사(주지 지광)에서는 이광수의 사물놀이와 판소리, 소프라노 정음스님의 독창, 대금산조 이수자 자연스님의 대금곡 등으로 풍성한 음악회가 열려 산사를 찾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김주필 기자(jkim@buddhania.com)

한글대장경 내년 313권 완간

21일 동국대역경원 35주년 기념법회

동국대역경원(원장 율운스님)이 개원 35주년을 맞아 21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율운스님은 “35년간 이어져 온 팔만대장경 역경사업은 온갖 역경을 딛고 해온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65년 개원한 동국대역경원은 〈장야함경〉을 시작으로 최근 〈불

‘포교사단운영위’ 11월경 발족

조계종 서울·경기 포교팀장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위원장)은 21일 대학 어린이 청소년 경찰 교도소 군 상담 열 불 사할 신행단체 직장 등 분야별 25개 팀의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지역 포교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경 전국 팀장 수련대회를 거쳐 ‘포교사단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27일 열리는 포교인회의에서 포교사단장을 결정, 9월부터 포교사들에게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80명이 참여한 소년소녀 돌기 후원자 납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포교팀을 관장하는 지역운영위원회, 해당 분야의 포교팀을 대표하는 분야운영위원회와 포교사단

한글대장경 완간

21일 동국대역경원 35주년 기념법회

모대공장명(원정)에 이르기까지 283권의 한문경전을 한글로 펴냈다. 앞으로 〈광명명집〉 〈홍명집〉 〈다라니장경〉 등 목록집 및 사진류 30권을 더 펴내, 한글대장경 시리즈는 2000년 가을경 총 313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방화2동 어린이집 수탁
태고종, 2년간 운영

한국불교대교종중앙회는 8일

구립 방화2동어린이집(강서구 방화동 616-20) 위탁운영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될 방화2동어린이집은 70여명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갖추고 언어생활 영어 등 정교 교육프로그램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전현스님 열빈

정빈스님 제적

조계종 초심회계원(위원장 종걸)은 22일 25차 심판부를 열어 불국사 공공형량과 여의도 불교문화원 공공형량과 관련된 진형, 정빈스님에게 각각 열빈과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정성운 기자

순수한 명연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법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달마대사) 그림, 龍(龍) 그림 (수맥과 처단) 특별보세

◎주문에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지 1부씩)

◀용린 佛字체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일주일 철야 용맹정지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7일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 바 보림 3關(不去來處 不生何物 滅者何物 泰山刮目來 綠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物 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聽者何物 若論今日事 忽忘舊時人)을 주제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安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活句 大乘禪을 廣揚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999년 7월 30일(금) 오후 8시부터 8월 5일(목) 오전 7시까지

●장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회비 : 일반 7만원(1일 1만원 기준)

●연락처 및 문의처 : 914-6187, 017)332-4096

●교 재 : 보림삼관,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3,5, 5-1,16,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정아파트앞 하차(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 산 합장
보림회 회장 하동인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작용의 성분이 신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 없이 맛중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장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 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케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다음 생리의 결과는 놀랄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든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포시 금정동 광 영 회)

체 령 사 례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장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 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케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다음 생리의 결과는 놀랄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든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포시 금정동 광 영 회)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애당되는 증상() 이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생리가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욕망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신적으로 활력순환이 인위적인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빈번한 설사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의사제